산업 Issue

2025년 12월 9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비상용 발전기와 온사이트

비상용 발전기에 주목

데이터센터, 대형 병원, 공장 등에는 전원 공급 중단 시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예비 장치인 비상용 발전기를 둔다. 가장 일반적인 비상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로 흡입-압축-폭발-배기의 과정을 거치며 빠른 시동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비상용에 적합한 특징이 있지만 진동과 소음이 심해 배기와 방음 장치를 필요로 한다. 가스터빈은 디젤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만 대용량 발전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소음이 적은 편이다.

에너지부 장관, 디젤 발전기 활용 네트워크 검토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워싱턴에서 열린 가스 포럼에서 데이터센터와 대형 소매점에서 사용중인 산업용 디젤 발전기 네트워크에 접근해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AI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전역에 흩어진 잉여 전력을 모아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라이트 장관은 해당 조치를 통해 35개 대형 원자력 발전소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형 원전의 평균 규모를 1GW로 가정하면 약 35GW의 전력 용량이 설비를 갖춘 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2026년에도 온사이트 발전에 모멘텀 지속 전망

12월 8일 개최된 넥스트에라에너지(NEE)의 인베스터데이에서도 BYOG(Bring Your Own Generation)에 대한 기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가동을 중단했지만 구글과 협력을 통해 2029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NEE의 Duane Arnold 원자력 발전소(615MW)가 BYOG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구글과 PPA를 체결해 구글이 발전소 비용을 부담해 다른 고객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형태다. NEE 같은 IPP 입장에서 BYOG 프로젝트는 PPA 가격 리스크, 인허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Duane Arnold는 향후 10년간 NEE 조정 EPS 연간 약 0.16달러를 기여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온사이트 발전인 연료전지와 태양광+ESS는 빠른 납기를 강점을 유지하며 단점인 높은 가격은 OBBBA 투자세액공제(ITC) 30%를 바탕으로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 NEE도 이번 인베스터데이에 메타플랫폼즈와 2.5GW 규모의 태양광+ESS PPA를 발표했다. 비상용발전기 역시 물리적으로 온사이트의 개념에 포함된다. mtu 비상발전기를 제조하는 롤스로이스(RR.LN)는 12월 4일 영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기업인 AVK에 5년간 디젤발전기 공급을 계약했으며 캐터필러(CAT.US)도 데이터센터향 디젤 발전기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2026년에도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섹터 내 온사이트 발전에 정책과 수주 모멘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5년 12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